

교수-학생 면담활동을 활용한 대학생의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도 조사: 대학생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적용

Needs Assessment of Applying Anger Management Program based on Professor-students Counseling Activity for University Students: Focus Group Interview in University Students

전원희*, 조명주**, 정안순***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경북대학교 간호학부***

Won-Hee Jun(jwh917@hanmail.net)*, Myoung-Ju Jo(nicupicu@naver.com)**,
An-Soon Jeong(asjung@kb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수-학생 면담활동을 활용한 대학생의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기술하기 위함이다. 2016년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5개의 그룹으로 구성된 3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였고, 질적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3개의 주제에 대해 9개의 범주로 구조화되었다. 1) 교수-학생 면담활동을 활용한 대학생의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견해: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수의 역량: 신뢰, 유능성, 수용적 태도, 3)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지도교수와 분리 또는 지도교수의 역할 축소,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학교의 지원, 상담환경의 조성으로 구성되었다. 결론적으로, 교수-학생 상담 활동을 활용한 대학생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의 강화를 위해 먼저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교수의 상담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대학의 행정적 지원과 교수, 학생, 대학 당국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분노관리 프로그램 | 면담활동 | 대학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and describe the demand of applying an anger management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professor-student counseling activity. 2016, data was collected using five focus group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All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e extracted the following 9 categories across 3 main themes: 1) Views on applying an anger management program based on professor-student counseling activity: required or not required; 2) Competence of the professor: trust, counseling expertise, and receptive attitude; and 3) Effective program management plans: separation from the advisor or reducing the role of the advisor, program composition and contents, administrative support from the university, facilitating a supportive environment for counseling. In conclusion, enhancement can be achieved through an anger management program based on professor-student counseling activity by focusing efforts on increasing interactions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and improving the counseling competence of professors. Additionally, administrative support from the university and steps to improve awareness in professors, students, and university authorities are necessary.

■ keyword : | Anger Management Program | Counseling Activity | University Students |

*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NRF-2015R1C1A1A02037485)

접수일자 : 2017년 02월 13일

수정일자 : 2017년 03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3월 20일

교신저자 : 조명주, e-mail : nicupicu@naver.com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학업, 대인관계, 가치판단, 진로 등의 다양한 발달과제에 직면하여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로 인해 자주 분노를 경험하는 반면, 분노를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미숙하여 과도하게 억제하거나 난폭한 말과 행동 등의 공격적인 양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1][2]. 분노감정은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감정이나 적절히 조절되지 못한 분노감정은 대인관계를 악화시키고 대학생활적응을 어렵게 하며 나아가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1][3]. 이러한 점에서 자신의 분노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으로 볼 수 있으며, 대학생들의 분노관리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노관리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최근 12년간의 분노조절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1]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37편(35.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동 33편(31.7%), 성인 24편(23.1%) 대학생 10편(9.6%)의 순으로 나타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재 프로그램의 내용은 1-2개의 인지 사회적 기술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분노의 다양한 측면(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 등)을 통합적으로 다루는데 한계가 있고[1], 분노관리를 위한 집단 상담의 경우 단기 효과는 있었으나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아[4]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속성과 접근 가능성 및 대학생의 통합적 인성 발달을 고려한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한 경우는 없었다. 대학생의 대부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대학이고, 이에 대학생의 주된 사회적 환경이 되는 곳이 학교라는 점을 착안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한 분노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대인관계와 심리적 적응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4]. 따라서 대학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강화

하여 이를 대학생의 분노관리에 활용한다면 보다 의미 있고 실제적인 분노관리를 위한 중재적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에 대한 소속감, 학생들의 지적 성장 및 인성발달에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기조절 특성을 통해 학업성취와 학교생활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이에 최근 많은 대학에서는 교수-학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재학생들이 지도교수와 온·오프라인 상담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평생지도교수제’라는 이름 하에 지도교수 체제를 정비하여 교수-학생 간의 심층면담을 격려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수-학생 면담활동을 체계화하여 교과목으로 운영하기도 한다[5][6]. 교수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지도할 뿐 만 아니라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언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지체제이다[7]. 따라서, 교수-학생 면담활동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좌절의 상황에서 학생의 분노,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7]. 또한 선행연구[8]에서 전공계열별 대학생의 분노 정도와 분노의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교수는 상담전문가에 비해 동일 전공계열 학생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학생들이 대인관계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접근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므로 교수는 학생의 분노관리에 가장 적합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분노관리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교수-학생 면담활동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성과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수-학생 면담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시간이나 횟수와 같은 면담활동의 구조적 측면과 대학생활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양적 연구 한 편 [5] 이외에는 없었다. 교수-학생 면담활동에 분노관리 프로그램을 접목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생의 관점과 언어를 통해 교수-학생 면담활동에 대한 경험 및 분노관리 프로그램 접목에 대한 견해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자료수집이 가능한 집단 면접법으로서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를 모으는데 유용하며, 질적 내용 분석은 잘 알려지지 않은 현상에 대해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탐색하는 연구방법이다[9].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생 면담활동을 활용한 대학생의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교수와의 면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험과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고, 또래 그룹 내에서 자연스러운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풍부한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10]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질적 내용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통하여 대학생들이 교수-학생 면담 활동을 활용한 분노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수의 역량 및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수-학생 면담활동을 활용한 대학생의 분노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교수-학생 면담활동을 활용한 대학생의 분노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생의 관점으로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적용한 질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참여자는 부산지역에 위치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학과 교수의 동의를 얻고 학과 사무실에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 중 다음의 선정기준에 적합하여 선정된 학

생들과 snowballing 기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소개를 받아 선정된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대학교에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재학 중인 자

둘째, 면담 시작 시점에서 최소 1회 이상 교수와 면담 경험이 있는 자

셋째, 연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

넷째, 연구의 목적과 면담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

이상과 같은 선정기준을 정한 이유는 대학생이 대학 생활 경험과 교수와의 면담 경험을 가지고 이를 진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 2개 학기 이상 재학 중이면서 최소 1회 이상 교수와 면담 경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생의 경우 자신의 경험을 진술함에 있어 제한이 될 수 있어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3. 포커스 그룹 구성

포커스 그룹 참여자는 문헌에서 4-10명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9] 이를 참고로 5-8명의 참여자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3개에서 5개 그룹의 참여자들이 다양성과 주제의 복잡성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본 연구는 1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모의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이후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5개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에 대해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선택하여 표본 추출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포커스 그룹 연구에서 단일 그룹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경우 그 집단만의 고유성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다[9]. 따라서 성별, 학과, 학년 등을 기준으로 최대한 다양한 학생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23 ± 1.63 세로 남학생 15명(50.0%)과 여학생 15명(50.0%)의 동일 비율로 구성되었다. 대상자의 학년은 1학년이 5명(16.7%), 2학년 6명(20.0%), 3학년 15명(50.0%), 4학년 4명(13.3%)이었다. 대상자의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 11명(36.7%),

이공계열 10명(33.3%), 보건의료계열 6명(20.0%), 예체능계열 3명(10.0%)이었으며, 전공만족도는 23명(76.7%)이 만족, 6명(20.0%)이 보통, 1명(3.3%)이 불만족하였다.

4. 윤리적인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의사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일대일 전화 면담을 통하여 구두로 확인하였으며, 모임 날짜와 장소를 약속하였다. 인터뷰 시작 전 다시 한번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고 서면 참여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참여 의사를 재확인하였으며, 서면 동의의 내용에는 연구의 목적, 인터뷰의 진행 방법 및 소요시간, 보상 내용, 진술된 내용에 대한 익명성 보장과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 연구의 전 과정에서 언제든지 참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면담의 전 과정은 녹음될 것이고 그 내용을 분석할 것임을 알려 준 후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모두 종료된 후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고, 추후 연락할 수 있는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녹음된 면담의 내용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사할 때 참여자의 신원과 관련된 개인 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 인터뷰한 내용과 동의서, 인터뷰 설문지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하였으며, 연구가 종료된 이후 전량 폐기할 계획임을 미리 알리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5.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연구자가 속해 있는 대학교의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연구진은 모두 교수로 인터뷰 당시 연구참여자와 보이지 않는 상하관계가 성립되어 인터뷰의 내용이 제한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인터뷰 전 회의를 통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진 중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에 소속된 연구참여자의 연구 참여 과정과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인터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뷰의 진행

은 연구자 중 연구참여자와 관계가 없는 연구자가 담당하였다. 인터뷰의 진행시 참여자의 구술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였으며, 참여자의 의견이나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자료와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 연구자가 질문을 통해 명료화하였고, 연구자의 이해와 해석에 대해 참여자들로부터 검증을 받았다. 인터뷰 종료 후에는 연구자 모두 인터뷰 내용에 대한 주요 정보를 검토하였다. 이들을 인터뷰한 결과, 5번째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에서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인터뷰를 중단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연령, 성별, 학년, 전공계열, 전공만족도)을 조사하였고, 면담에는 참여자들과 진행자 1인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찾기 위해 허용적이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모든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 규칙을 안내하였다. 각 주제별 질문의 형태는 Krueger와 Casey[11]가 제시한 질문방식을 참조하여 질문을 개발하였다. 연구진은 질문의 원칙을 숙고하고, 연구문제를 명확히 하면서, 질문 아이디어를 의논하여 질문의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초안을 검토하여 최종 질문을 구성하였다. 인터뷰 가이드(protocol)는 포커스 그룹 면담시 모든 그룹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면담에서 사용한 주요 질문은 [표 1]과 같다. 면담시 모든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실시하여 연구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나 진술이 나타나지 않는 자료의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진행하였다. 2대의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한 후, 참여자가 한 말을 그대로 필사함으로써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총 5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2016년 8월과 10월 사이에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각 그룹당 5-7명으로 30명이었고, 각 그룹의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90-120분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준비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들은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를 수강하였고, 지속적으로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질적 연구 능력을 숙련해 온 간호학 전공 교수들이다. 연구자들은

표 1. 교수-학생 면담활동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분노관리 프로그램 요구도에 관한 질문

질문	탐색내용	전환질문
도입	최근에 분노했던 경험	최근에 분노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소개질문	분노해결방법	화가 나면 어떤 식으로 분노를 해결하세요?
전환질문	현재 교수-학생면담활동 실태	대학에서 교수-학생 면담활동은 어떤 구조(면담 횟수, 시간, 방법)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면담시 다루고 싶은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요질문	프로그램을 실시에 대한 견해	교수가 교수-학생 면담활동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분노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에게 필요한 역량	교수-학생 면담활동에서 대학생의 분노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교수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과적인 운영방안	교수-학생 면담활동에서 대학생의 분노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효과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질문		지금까지 이야기한 교수-학생 면담활동에서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도 내용 이외에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정신간호학과 심리학, 상담 및 질적 연구를 포함한 연구 방법론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최소 4년 이상의 교육 및 학생 지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로서 학생들과 상담을 꾸준히 하면서 더욱 이론적 민감성을 높일 수 있었다.

6.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매회 인터뷰 종료 후 3일 이내에 연구자가 직접 컴퓨터프로그램에 전사하였다. 본격적인 자료 분석은 자료가 포화되어 자료 수집이 완료된 후 전사된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연구의 질문을 중심으로 Elo와 Kyngäs[12]가 제시한 귀납적 내용 분석의 과정에 따라 다음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6.1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주요 진술문 확인

전사된 참여자의 모든 진술과 메모를 읽고 원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주요 진술문을 확인하였다.

6.2 개방코딩

확인된 주요 진술문을 다시 읽으면서 그 의미의 적절한 표제가 될 수 있는 개념과 문구를 기록하여 개방코딩 목록을 작성하였다.

6.3 범주 생성 및 추상화

개방코딩 목록에 포함된 개념과 문구를 비교하면서 유사한 내용끼리 통합한 후에 그 의미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여 하위범주로 추상화하였고, 하위범주는 다시 그 의미와 특성의 유사성에 따라 통합한 후 다시 범주를 추상화하였다.

7. 연구의 타당성 확보

Lincoln과 Guba[13]가 제시한 질적 연구 평가기준인 신뢰성(credibility), 적용가능성(transferability), 확실성(dependability),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을 고려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인터뷰 내용의 '신뢰성'을 위해서 자료 수집에서 참여자의 진술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최대한 배제하여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였고, 자료 분석에서는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모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연구자와 참가자간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의 동일성 등을 점검하였다. '적용가능성'을 위해 참여자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의미있는 개념과 문구, 범주를 추출하였다. '확실성'과 '확인가능성'을 위해 인터뷰 후 연구자가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여 참여자에게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였고, 시간차를 두고 자료 분석 결과를 반복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각

포커스 그룹 참여자로부터 1인씩, 총 5명에게 분석 결과가 인터뷰 내용을 잘 반영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다년간 학생 상담과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심리학 교수 1인에게 본 자료의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III. 연구결과

1. 교수-학생 면담활동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분노관리 프로그램 요구도

참여자들이 진술한 교수-학생 면담 활동을 활용한 대학생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도는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총 177개의 의미있는 진술문이 추출되었고, 개방코딩을 통해 49개의 개념 및 문구가 도출되었고, 총 35개의 하위범주로 통합되었으며, 이를 바

탕으로 9개의 범주로 구조화하였다(표 2). 연구결과를 교수-학생 면담 활동을 활용한 대학생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견해, 분노프로그램 운영시 교수에게 필요한 역량, 분노프로그램 운영시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따라 범주를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1 교수-학생 면담 활동을 활용한 대학생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견해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교수-학생 면담 활동을 활용한 대학생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견해는 ‘필요함’과 ‘필요하지 않음’ 2개의 범주를 가진다.

1) 필요함

교수-학생 면담 활동을 활용한 대학생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에는 ‘분노관리 시스템 필요’, ‘교

표 2. 참여자들이 진술한 교수-학생 면담 활동을 활용한 대학생의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도

주제	범주	하위범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견해	필요함	분노관리시스템 필요 교수의 학생에 대한 이해 증가 학교생활상담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현실적 도움 부족 현실적 지지체계
	필요하지 않음	교수의 업무 부담 가중 교수의 상담 역량 부족 교수와 학생간 진술한 만남의 어려움 교수와와의 이중관계에 대한 부담 분노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의문 비밀보장과 낙인에 대한 우려 감정은 개인의 책임
	신뢰	친밀감 형성 비밀보장 편견 갖지 않기
	유능성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자기 성찰 민감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수 역량	수용적 태도	관심과 이해 공감 능력 인내심
	지도교수와 분리 또는 지도교수의 역할 축소	학과별 전담 교수 배정 교양과정 교수 배정 전문가의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중재 또는 위임 학생 주도의 또래 상담 운영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전체 프로그램 안의 일부 파트로 운영 동적 활동 프로그램 개발 소규모 모임 운영 교과목 형태로 운영 원인 파악과 효율적인 분노 관리방안 제시 프로그램 전·후 피드백 지속성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학교의 지원	비용과 시설 지원 홍보와 참여 유도 선별검사
	상담환경의 조성	편안한 분위기의 상담 장소

수의 학생에 대한 이해 증가', '학생생활상담센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현실적 도움 부족', '현실적 지지체계'의 네 하위범주가 있었다. 여기에는 분노를 과도하게 표출하거나 억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노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교수-학생 면담 활동을 활용한 대학생 분노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교수와 학생 간 친밀도가 높아져 교수의 학생에 대한 이해가 증가할 수 있으며,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자신의 성격 유형에 대한 결과를 해석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때 자신에 대한 이해보다는 상담 센터의 실적 향상에 이용된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학생들은 좀 더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을 희망하였으며, 교수가 인생의 선배로서 학생의 현실적인 지지체계가 되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대학에 오면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이잖아요. 지금 근처에 있는 어른 중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냉철하게 말씀 해주실 수 있는 분은 교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억울하고 쌓여있던 게 터지면 그게 분노인 거 같은데, 평소에 그런 걸 털어놓고 해결 방안들을 이야기 하다보면, 억울함과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고, 그러면 분노하는 상태까지는 안갈 거 같아서 괜찮을 거 같아요. 그냥 어른과 아직 사회생활이 좀 미숙한 그런 아이라고 봤을 때에 저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2) 필요하지 않음

교수-학생 면담 활동을 활용한 대학생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지 않음에는 '교수의 업무 부담 가중', '교수의 상담 역량 부족', '교수와 학생간 진솔한 만남의 어려움', '교수와 학생의 이중관계에 대한 부담', '분노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의문' '비밀보장과 낙인에 대한 우려', '감정은 개인의 책임' 총 7개의 하위범주가 있다. 여기에는 교수-학생 면담 활동을 활용한 대학생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시 교수의 업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를 우려하였으며, 교수의 상담 전문성과 역량 부족으로 학생에게 교수의 의견을 강요

하거나 무시당한 느낌을 주어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면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상담 횟수를 채우기 위한 형식적 상담과 학생의 교수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해 교수와 학생간 진솔한 만남 자체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에서 수업과 같은 공적인 관계와 상담 관계 즉 이중관계로 인해 교수가 자신에 대해 감정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으로 선입견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였으며, 상담 중 교수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취업 추천에서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또한 분노 감정이 있을 당시에 면담을 하기 어려움과 일시적인 면담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대학생은 주변의 시선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우들에게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개인적인 내용을 다른 교수나 동료학생들이 알게 될까봐 걱정하였다. 또한 대학생 시기에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분노와 같은 감정은 성인이라면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저희 교수님들이 다 우리 분야에서 탁월하신 건 맞지만, 과연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 게... 이게 대개 속 깊은 내용을 얘기하고 그런 감정들을 건드려야 하는데 교수님은 면담할 때 제가 조교님이 같이 있는 거 싫어한다는 것도 모르는데 분노관리 프로그램을 해낸다는 거 자체가 약간 의문이 들구요. 저희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제 이름조차 모른단 말이예요. 저의 존재도 몰랐던 교수님들이 면담할 때만 '아 이 학생 이구나' 이렇게만 넘어가는데, 나의 존재도 모르는데 이 교수님한테 나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학생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문이 안 열릴 거 같고 교수님이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도 들 거 같아요.

1.2 교수-학생 면담 활동을 활용한 대학생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수 역량

참여자들에게 있어 교수-학생 면담 활동을 활용한 대학생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수 역량에

는 '신뢰', '유능성', '수용적 태도' 총 3개의 하위 범주가 있었다.

1) 신뢰

신뢰에는 '친밀감 형성', '비밀 유지'와 '편견가지지 않기'의 세 하위범주가 있는데, 교수와 학생 간 거리감을 줄여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한 존재로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수는 학생과의 면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와 학생의 대학생활과 면담을 분리하여 학생을 비판적인 태도로 대해 학생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교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먼저 개선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수님이라고 하면 어려운 분? 그런 인식이 더 많으니까 상담을 받고 싶어도 상담하러 가지 않게 되요 교수님이 어려운 존재인데 이제 기동.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먼저 개선을 해주는 게 상담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것...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인 비밀유지 같은 것도 확실히 해주면 좋을 거 같고, 공과 사를 구분을 하시는 그런 것들만 잘 챙겨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유능성

참여자들은 교수-학생 면담활동을 통한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수역량으로 교수의 유능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여기에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자기성찰', '민감성'의 세 하위 범주가 있다. 학생들은 상담은 사람의 내면의 심리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교수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고, 먼저 자신의 분노관리부터 하여야 하며, 학생의 분노감정을 잘 포착하는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진짜 그 분야나 그에 대한 자격증 내지 뭐 교육을 받아야지 저희한테 상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저희가 납득이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준다면 뭘 믿고 저희가 따라야 하는 건지도.. 신뢰감이 없지 않나요. 전

공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도 그만큼 자격증이 있고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저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분노조절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셨던 교수님이 계시면 전문상담가 못지않은.. 그에 못 따라가더라도 잘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3) 수용적 태도

수용적 태도에는 '학생에 대한 관심과 이해', '공감 능력'과 '인내심' 세 하위범주가 있었다. 먼저 학생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교수 주도의 상호작용 보다는 학생의 말을 잘 경청하고, 학생의 감정에 대해 공감해주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존중받은 느낌을 갖도록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는 수용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학생 면담이 이뤄진다면 그 교수님은 화를 좀 잘 낼 수 있는 분이었던.. 그러니까 자기도 욕하고 하는데 경험에 비춰서 그런 말씀해주실 수 있는 교수님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교수님은 분노도 잘 안 하시는데 그 앞에 대고 이럴 때 화가 나고 저럴 때 화가 난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같이 리액션해서 와 화났겠다. 리액션 같은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3 교수-학생 면담 활동을 활용한 대학생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참여자들이 있어 교수-학생 면담 활동을 활용한 대학생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는 '프로그램 운영시 지도교수와 분리 및 역할 축소',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방안', '학교의 지원', '상담 환경의 조성' 총 네개의 하위 범주가 있었다.

1) 지도교수와 분리 또는 지도교수의 역할 축소

지도교수와 분리 또는 지도교수의 역할 축소에는 '분노관리 프로그램에 학과별 전담 교수 배정', '교양과정 교수 배정', '전문가의 분노관리 프로그램 중재 또는 위임', '학생 주도의 또래 상담 운영시 조연자로 역할 축소'가 포함되어 있다. 대상자들은 지도교수가 모든 학생

들을 관리하기 어렵고, 교수와 학생 간의 이중 관계로 인해 자신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학과별 분노관리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교수를 배정하거나 교양과정의 교수와의 면담 활동을 선호하여 사생활 면에서 지도교수와 분리되고자 하며, 교수의 전문성 부족과 교수와 학생 간 상하 관계로 인해 교수가 대화 주도권을 갖는 것을 우려하여 전문상담가에게 위임하거나 전문상담가가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중재하기를 희망하였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학생들 간 또래 상담을 운영하되 교수는 프로그램 운영에서 조언자의 역할로 제한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전공 교수님이랑 더 친해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전공이다 보니까 뭐가 잘 해야 할 것 같고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 할 것 같고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그러면은 선배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조금 더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양수업과 전공수업은 약간의 마음가짐이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말해도 상관이 없을 수 있으니까.

2)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에는 '분노관리 프로그램을 일부 파트로 운영', '동적 활동 프로그램 개발', '소규모 모임 운영', '교과목 형태로 운영', '원인의 파악과 효율적인 분노관리 방안 제시', '프로그램 전·후 피드백', '지속성'의 7개의 하위범주가 있었다. 학생들이 분노관리가 주요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도록 취업 준비나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 내에 일부 파트로 다루어 학우들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게 하거나,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동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다른 학과 학생과 같이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참여자와 소규모 모임을 진행하여 자기 노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어하였으며,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의 분노관리를 도울 수 있도록 교과목 형태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자신의 분노의 원인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분노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하였으며, 자신의 변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전과 후에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5명, 10명 넘어가면 서로 눈치보기 시작하고 또 서로 동공지진하고 막 그러고 있기 때문에. 발언 기회도 별로 없고, 말할 기회가 있어도 내가 말하면 늦게 끝날 거 같아서 빨리 끝내야 할 거 같은 그런.. 약간 시선 같은 거 있잖아요 시선도 생각해야 하고 너무 1대1이 그렇다 싶으면 2-3명끼리 가도 좋다고 생각해요. 단체로 한다면 차라리 모르는 사람. 차라리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 게. 한번보고 말, 요때만 볼 사람. 비즈니스 관계.

3) 학교의 지원

학교의 지원에는 '비용과 시설 지원', '홍보와 참여 유도', '선별검사'의 세 하위범주가 있는데,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컴퓨터와 화를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과 같은 시설 투자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홍보와 이 프로그램을 받는 학생들이 낙인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우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생 면담 활동을 활용한 분노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선별검사와 같은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꼭 교수랑 학생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큰 틀이라도 제시해 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 프로그램을 교수와 학생이 하는데 뒤에서 받침이 되어 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좀 더 좋은 걸로 해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준다든지 시설을 좋게 해주면 뭐가 더 플러스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학교라는 틀 안에서 하는 건데 학교는 무관심하고 무조건 교수와 학생만 해야 되는 거니까..

4) 상담 환경의 조성

참여자들은 딱딱한 분위기로 압박감을 주는 교수 연구실이 아닌 편안한 분위기의 쉼터나 학교와 분리된 외부에서 자유롭게 면담하기를 희망하였다.

저는 뭔가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뭔가 약간 쉼터 같은 그런 약간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약간 쉼터같이 아무래도 뭔가 대학생이라고 하면 만날 도전하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니까 불안함 걱정 이런 걸로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누군가 이야기하고 뭔가 조언을 얻을 수 있게 좀 약간 스스럼없는 형식 없고 격식 없는 안식처같이 해 놓으면 좀 더 편안하고 눈치 안 보게, 가깝게 무겁지 않게 이 프로그램이 다가올 거 같아요.

IV. 논의

본 연구는 교수-학생 면담활동을 활용한 대학생의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질적 내용 분석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참여자의 요구도는 ‘교수-학생 면담 활동을 활용한 대학생의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견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수 역량’,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이라는 세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되었고, 각 주제로부터 9개의 범주와 35개의 하위범주를 추출하여 구조화할 수 있었다. 각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에게 있어 교수-학생 면담활동을 통한 대학생의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견해는 ‘필요함’과 ‘필요하지 않음’ 두 하위 범주가 있었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의 답변은 ‘분노관리시스템의 필요’, ‘교수의 학생에 대한 이해 증가’, ‘학교생활상담센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현실적 도움 부족’, ‘현실적 지지체계’로 구조화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적응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분노와 같은 심리적 혼란을 경험할 때에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까운 지인들과 의논하는 경향이 많아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이용률과 참여 의지가 낮아[14] 상담 대상자와 상

담 서비스간의 gap이 발생한다[15]. 이는 교수가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멘토 역할자로 큰 영향력을 주며 [5][10][16], 교수와 학생 간의 접촉 횟수가 많을수록 대학생의 인지 및 정서적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5][17]을 고려할 때, 교수는 학생과의 면담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나 분노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확인하고, 심리적 지지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 지지체계가 되어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반대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의 답변은 ‘교수의 업무 부담 가중’, ‘교수의 상담 역량 부족’, ‘교수와 학생간 진솔한 만남의 어려움’, ‘교수와의 이중관계에 대한 부담’, ‘분노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의문’, ‘비밀보장과 낙인에 대한 우려’, ‘감정은 개인의 책임’으로 구조화되었다. 학생들은 교수들이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인데다 바쁜 업무로 학생들에게 관심이 부족하고, 상담의 역효과에 대한 우려와 개인의 감정까지 학교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10][16]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상담자로 교수를 선호하고, 교수에게 관심 받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만 반면 다가가기 어려운 대상으로 인식하며, 교수를 신뢰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수업 외 활동에서 교수와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편이며[18], 비교적 단시간 내에 성장한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외국에 비해 학생들의 전인 발달보다는 학문적 수월성과 성과 위주의 평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풍부한 대학 경험과 교수와의 관계맺음에 대해 관심이 비교적 적을 수 있다[19]. 그러나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은 학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육적 경험이며, 교수와 학생 간의 인간적 교류가 증가할수록 대학생은 자기 조절적 행동이 더 높아짐[20]을 고려할 때 교수와 학생 간의 교류 기회 증대를 통해 교수와 학생간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와 학생 간의 친밀감이 교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여 교수-학생 면담을 활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16]. 선행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상담의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 자기노출에 대한 부담과 이에 대한 비밀유지[2]와 낙인[15][21]에 대한 우려가 상담과

같은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의 회피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한국 문화에서는 구성원간 관계와 체면을 중시하고, 대학생의 성장발달 시기 또한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22]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22]에서 대학생들은 상담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정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많고, 스스로 문제 해결이 어렵고, 쉽게 상처받고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많았지만, 반대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게 관심이 많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대학생들에게 상담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할 때 객관적 시각에서 볼 수 있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수의 역량으로는 '신뢰', '유능성', '수용적 태도'로 구조화되었다. 교수의 '신뢰 역량'으로 학생과의 '친밀감 형성', '비밀보장', '학생에 대한 편견 갖지 않기'가 있었다. 교수-학생 상담 관계에서 신뢰는 상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학생의 동기부여와 참여에 긍정적 관련이 있다[16]. 이에 교수는 학생에게 신뢰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능성 역량'으로 교수의 '상담 전문 교육과 훈련', '자기 성찰', '민감성'이 있었다. 즉, 학생들은 교수의 지식 수준에서의 교육적 훈계는 도움이 되지 않고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2] 교수-학생 간의 면담을 활용한 분노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보다 전문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교수의 상담 전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과 자기 성찰, 민감성 배양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16]. 이를 위해서는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교수들을 위해 지식 위주의 상담 연수보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담 지도 연수를 교수 연수에 포함시켜야 한다[5].

'수용적 태도'는 '학생에 대한 관심과 이해', '공감 능력', '인내심'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교수-학생 면담시 교수가 중심이 되는 상호작용을 한 학생들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감소하고[23], 교수의 무관심한 태도와 바빠보이거나 권위적인 태도가 학생들의 이후 교수와의 면담에 영향을 미침[24]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교수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감정은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질을 줄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교수는 학생과의 면담시에 교수는 학생에 대한 존중과 관심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으로는 '지도교수와 분리 또는 지도교수의 역할 축소',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학교의 지원', '상담환경의 조성'으로 구조화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을 '학과별 전담 교수 배정', '교양과정 교수 배정', '전문가의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중재 또는 위임', '학생 주도의 토대 상담 운영'을 통하여 지도교수와 분리 또는 지도교수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학생들은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서 교수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피동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데[25], 지도교수는 자신의 학교생활과 취업 추천 등에 영향력을 미치지만, 교양과정의 교수, 상담전문가, 동료 학생은 특별히 상호작용의 주도권을 가지는 사람이 없거나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수평적이고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 경험이 필요하며, 교수-학생 면담 프로그램시 교수의 역할을 조연자나 조력자의 역할로 제한하고, 학생과 수평적 상호작용 중심의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과 교수, 교양과정 교수, 상담 전문가, 동료 학생 등 학생들이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중 두 번째는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전체 프로그램 내의 일부 파트로 운영', '동적 활동 프로그램 개발', '소규모 모임 운영', '교과목 형태로 운영', '분노의 원인 파악과 효율적인 분노 관리방안 제시', '프로그램 전·후 피드백', '지속성'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분노관리가 필요하여 프

로그래에 참여한다는 부정적 인식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트레스 관리’나 ‘행복증진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 안의 소주제로 다루어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분노관리임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교수-학생 면담활동을 활용한 분노관리 프로그램 구성시 학생들이 주변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력 향상이나 감정 발산이 스트레스 해소와 분노관리에 도움이 되므로[26] 학생들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동적인 활동을 프로그램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개인면담에 대한 부담감과 교수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로 소규모 모임이나 교과목의 운영을 희망하였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와의 친밀감과 동료학생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고 싶어 하였다. 교수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면담 지도와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교수-학생 면담을 이용한 분노관리 프로그램을 매뉴얼로 개발하여 소규모 모임, 비교과 프로그램, 교과 프로그램 등으로 대학교육에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점 부여 또는 교수의 업적 평가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교수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5]. 또한 교수가 학생의 효율적인 분노조절을 돕기 위해 교수의 상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5][27].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분노의 원인과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알고 싶어하였다. 이에 분노의 원인에 맞는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을 긍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중재가 제공되어야 한다[28].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해 보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낮은 자존감을 가질수록 높은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고[29],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적응함[30]을 고려할 때 자존감과 감사성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은 자기표현을 잘 하지 못하여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혼자서 분노감과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자기주장 훈련과 같은 의사

소통 훈련을 통해 자신과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14].

교수-학생 면담활동을 활용한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으로 참여자들은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학교에서 비용과 시설의 지원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대학 총장과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교수와 학생간 상호작용은 분노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감소시켜 대학생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학업과 사회적 성과를 고취하는데 도움이 된다[17]. 이에 대학에서는 교수-학생 면담을 교수의 개인의 몫으로만 치부하기보다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시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생들의 요구에 충실한 다양한 홍보 전략과 정책적 선도가 필요하며[2][16]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공간적 여건 확보 등을 통해 시스템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요구된다[20]. 또한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와 관련된 부정적 견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27]. 따라서 인식 개선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시 대학 차원에서 상담의 긍정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홍보가 필요하며[22][31], 교수와 교직원들에게도 인식 개선 교육이 요구된다.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변화에는 교수의 노력 뿐만 아니라 학생의 참여 의지가 중요하므로 학생이 대학교육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재된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6].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의 네 번째는 ‘상담 환경 조성’이었다. 학생들은 교수연구실과 같은 장소에서 상담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으며, 학교 외부나 커피와 같은 편안한 분위기의 장소에서 상담받기를 희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2]에서 대학생들의 상담서비스 요구 중 상담 환경에 대한 요구가 제일 높았는데, 이는 학생들이 상담을 받게 되는 장소의 쾌적함과 분위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학생과의 상담시에 학생들이 상담 장소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상담 환

경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교수-학생 면담활동을 활용한 대학생의 분노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의 진술의 질적 내용을 분석한 결과 3개의 주제에 대해 9개의 범주와 35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견해와 관련해서는 ‘필요함’과 ‘필요하지 않음’으로 분류되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수의 역량에는 ‘신뢰’, ‘유능성’, ‘수용적 태도’가 포함되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는 ‘지도교수와 분리 또는 지도교수의 역할 축소’,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학교의 지원’, ‘상담환경의 조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특정 지역 대학생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교수-학생 면담활동을 활용한 분노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대학생들의 관점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기법이나 이론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대학생이 원하는 교수와의 상담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에게 직접 확인한 교수-학생 면담활동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견해, 프로그램 운영에 요구되는 교수의 역량,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방안들은 향후 교수-학생 면담활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현재 분노 수준이 높고 분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상담에 대한 동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교수-학생 면담 활동을 활용한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 문헌

- [1] 이정숙, 이현, 안윤영, 유정선, 권선주, “국내 분노 조절 프로그램 연구 동향: 국내 학술논문 중심으로(1996~2008),”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제5권, 제1호, pp.1-22, 2010.
- [2] 손연아, 손은령, “개인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상담 준비도와 상담서비스요구,” 교육발전논총, 제33권, 제2호, pp.103-121, 2012.
- [3] 백승혜, 현명호,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제27권, 제4호, pp.1001-1017, 2008.
- [4] 박영주, 유호신, 한금선, 권정혜, 김한걸, 조윤정, 강현철 천숙희, 윤지원, “학교기반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제39권, 제1호, pp.145-156, 2009.
- [5] 정주영, “지도교수와와의 면담이 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1권, 제4호, pp.95-114, 2013.
- [6] 최보금, 조성희, “대학생의 교수-학생 및 동료학생 간의 상호작용유형 변화에 따른 자기결정성 동기 분석,” 교육학연구, 제52권, 제3호, pp.29-54, 2014.
- [7] S. P. Gayathri, T. M. Y. Joanne, T. P. A. Jonas, T. Y. J. Jonas, and K. Naveen, “Anger management among medical undergraduate students and its impact on their mental health and curricular activities”, Education research international, pp.1-6, 2016.
- [8] 전원희, “대학생의 특성분노, 분노표현, 긍정적 사고 및 감사성향,” 정신간호학회지, 제25권, 제1호, pp.28-36, 2016.
- [9] 김귀분, 신경림, 김소선, 유은광, 김남초, 박은숙, 김혜숙, 이경순, 김숙영, 서연옥, 질적 연구방법론, 현문사, 2000.
- [10] 최영훈, 성민정, “대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 요소를 바탕으로 한 대학에 대한 관계성 인식 탐색: 부산 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광고학 연구, 제

- 26권, 제1호, pp.103-136, 2015.
- [11] R. A. Krueger and M. A. Casey, *Focus groups (3rd edition)*, Stage publication, 2000.
- [12] S. Elo and H. Kyngäs,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62, No.1, pp.107-115, 2008.
- [13] Y.S. Lincoln and E. Guba, *Naturalistic inquire*, Stage Publication, 1985.
- [14] 송소원, 연문희, "집단상담: 대학생의 자기표현 향상 집단상담을 통한 변화 경험 질적 분석," *상담학연구*, 제9권, 제4호, pp.1641-1773, 2008.
- [15] 김정수, "대학생의 낙인, 상담에 대한 기대와 상담 추구태도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3호, pp.391-402, 2016.
- [16] 이인경, 김장희, "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교수 멘토링 교육과정의 효과," *상담학연구*, 제12권, 제2호, pp.673-691, 2011.
- [17] E. T. Pascarella and P. T. Terenzini,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A third decade of research*, Jossey-Bass, 2005.
- [18] 김은경,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제19권, 제4호, pp.877-895, 2005.
- [19] 최정윤, 이병식, "대학생의 학습성취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 대학의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 연구*, 제27권, 제1호, pp.199-222, 2009.
- [20] 배상훈, 강민수, 홍지인, "A대학의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그 문화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열린교육연구*, 제24권, 제3호, pp.21-49, 2016.
- [21] J. H. Hammer and D. L. Vogel, "Assessing the utility of the willingness/prototype model in predicting help-seeking decis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60, No.1, pp.83-97, 2013.
- [22] 왕윤정, 서영석, "대학생이 인식하는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원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7권, 제4호, pp.773-796, 2015.
- [23] J. J. Schmidt, *Counseling in schools: Essential services and comprehensive programs*, Allyn & Bacon, 2003.
- [24] 고윤주, 이은혜, M. J. Mendelson,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친구관계 비교 연구: 친구의 지원, 갈등 해결 방식 및 친구관계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5권, 제1호, pp.1-18, 2002.
- [25] 김윤기, "Twitter 상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 특히 GIS 강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1호, pp.43-69, 2016.
- [26] 백선숙, 하은호, 류언나, 송미승,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 제18권, 제4호, pp.257-163, 2012.
- [27] 진은영, 소상섭, 이명인,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분노표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8호, pp.409-418, 2015.
- [28] 정주리, 연구진, 양지웅, 김정기, "상담경험 유무에 따른 성별, 심리적 어려움, 상담관련 경험 및 태도가 대학생의 상담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제24권, 제1호, pp.131-150, 2016.
- [29] 김은희, *자존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공격성 간의 관계: 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30] 김종운, 이지은, "대학생의 감사성향이 분노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제16권, 제6호, pp.409-423, 2015.
- [31] 김법선, 전윤경, 전진실, "대학생의 상담에 대한 태도," *인간이해*, 제29권, pp.49-59, 2008.

저 자 소 개

전 원 희(Won-Hee Jun)

정회원



- 199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학사)
- 2004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2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계명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 정신건강, 간호교육

조 명 주(Myoung-Ju Jo)

정회원



- 2002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학사)
- 2007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3년 1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 아동건강, 간호교육

정 안 순(An-Soon Jeong)

정회원



- 1986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학사)
- 1996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0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관심분야> : 정신건강, 간호교육